

장뜰두레놀이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문화축제 발전방안*

Cultural Value of Jangddeul Durea Norie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Local Cultural Festival

김영문 (서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팀장- 주저자)

이상엽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Abstract

Young-Moon Kim / Sang-Yup Lee

Durea was a Korean traditional way of farming labor which had form of cooperative labor. I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to combinante between village members and enclose various spirit of Korean people. It had three spirits (community spirit, democracy spirit, alcoholic drinks and playing's spirit) of making foundation of villages. Nowadays many regional festivals have been flourished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to analyze cultural value of Jangddeul Dureanori and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of local cultural festival. Jangddeul Dureasori of Jeungpyeong-gun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1) 'Gorijilsori', etc. recites same sound of Saseol one more time. 2) Both 'Monaekisori' and 'Boribangajiki' are similar to 'Jeongseon Arirang' to have a lot of long Siga and to express comfortable and bright musical motif. 3) Both 'Chodeupmaeki' and 'Ideupmaeki' have wide interval sound to express bravely and powerful feeling. Village people, industry,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have to develop systematic strategies of local cultural festival applying natural, ecological, cultural resources. Jeungpyeong-gun should improve the aggregate value of county identity(CI).

주제어 : 두레, 장뜰, 지역문화축제, 증평군, 장뜰두레놀이

Key Words : Durea, Jangddeul, local cultural festival, Jeungpyeong-gun, Jangddeul Dureanori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 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요와 같은 무형의 자산들도 지자체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더불어 이러한 농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증평군은 충청북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괴산군, 서쪽으로는 진천군, 남쪽으로는 청원군, 북쪽으로는 음성군과 접하고 있다. 증천동의 ‘증’과 장평(장뜰)의 ‘평’자를 따서 현재와 같이 ‘증평’이라 명명되었다. 증평군은 조선후기 중요 지역교통로인 율봉도찰방(栗峰道察訪) 중의 시화역(時化驛)의 소재지로서 예부터 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두타산이 북동에서 남서로 산맥을 이루며, 이성산(二城山)이 병풍처럼 감싸는 넓은 평야지대로서 삶을 영위하기에 매우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삼국시대에 삼국의 세력이 교차하는 접경지였다.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주위의 여러 지역의 문화가 모여서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장뜰’은 증평의 넓은 들과 하천을 아우르는 함축적 지명으로서 이 지역에서 농사가 성행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민요란 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불리는 소박한 노래로서 민중의 생활감정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표현된 것이다. 충청도에서 불리고 있는 민요나 노동요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독창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경기도나 전라도 민요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충북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요나 민요, 아리랑류 노래 등 토속민요에는 주변지역의 민요와 구별되는 음악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이창신, 2007: 2). 증평장뜰두레농요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농부들이 고된 농사일과 삶의 애환을 이겨내기 위해서 농사일을 하면서 노래했던 노동요이다. 농사 노동요는 영농의 기계화가 정착되면서 대부분 전해지지 못하고 있으나 증평 지역에서 지금까지 농요가 전승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농요의 사설은 대부분 농사일의 시기에 따를 자연현상과 농사에 관련된 일상사, 농부의 삶의 애환, 효친사상과 우리민족 특유의 풍자해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래를 함으로서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흥을 돋우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귀중한 전통 문화유산이다. 농요의 구조는 노래선율과 사설로 나눌 수 있는데, 사설은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가변적 성향이 강하지만, 노래선율은 쉽게 변하지 않고 음악 미학적 가치 또한 내포하고 있어서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본고에서는 농요의 선율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농요의 자료로는 그 중에서 청이 제일 좋고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소리꾼 정달훈씨의 노래 소리를 기초로 하였다.

장뜰두레농요를 지역축제화한 장뜰 들노래축제는 옛 논농사와 농요를 테마로 하는 농업 문화 축제로서 어린이들에게는 흔히 접해 볼 수 없는 옛 농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어른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지역축제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당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적 인(static) 단일 행사나 축제 중심의 틀 속에 머물고 있고, 단순주유형식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을 벗삼아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잠재 방문자의 다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공격적 마케팅의 결여 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001년 농촌관광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시장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은 총량 기준으로 연평균 3.4%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농촌관광은 연평균 10.9%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관광 경험자들의 만족도도 8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을 경영하는 마을과 민박농가 등에서는 숙박 및 음식물 판매수익, 농산물판매수익 등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0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관광마을당 평균 방문객수는 5,117 명/년, 총매출액은 67,868천원/년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을 경영하는 가구의 농촌관광 수익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하인 경우가 48.7%로 가장 높았지만 농촌관광 수익이 전체 가구 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농촌관광 수요전망도 밝은 편이어서 체험활동과 농가 민박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2011년에는 3.2%인 8,838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역점을 주는 생태관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뜰들노래축제의 방문객은 연인, 젊은층, 가족 등 다양, 특히 상당수가 가족팀이고, 자발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이므로 전통문화축제로 비전이 있어 보이며,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옛 조상들의 삶을 재연하여 온고지신을 부각하고 학생들의 학습장이 될 수 있으며, 축제 테마가 차별성이 있어 국가지정문화축제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주도하에 주제의 차별화, 다양화, 특성화와 민관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추진되어 발전된다면 현대사회에서 온고지신을 행하는 증평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뜰두레농요의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축제화한 장뜰들노래축제 분석을 통해 농촌·문화자원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장뜰두레농요의 내용과 가치

1. 장뜰두레농요의 가치

인류의 발달은 노동의 발달과 함께 하였다. 인류는 노동을 통해 사회를 발달시켜 왔으며 효과적인 노동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의 방법도 변화시켜 왔다. 그러한 노동방법 중의 하나가 공동노동이고, 이 공동노동은 어느 시기나 존재해왔다(이희원, 2007).

두레는 한국 역사 내 가장 큰 공동노동의 형태이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문화의 대표적인 농민생활 풍습 중의 하나다. 두레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조선 후기 이양법의 확산은 두레가 발생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양법은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사방법으로 기존의 노동방식으로는 모든 농사일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노동의 형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두레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두레를 통해서 단결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을 고양시켜 왔다.

두레는 힘겨운 노동을 공동노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되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작업공동체이다. 두레는 그 성격상 공동체적 성격, 민주적 성격, 평등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두레는 마을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성격을 갖고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음을 의미한다. 두레의 공동노동에서 모든 두레꾼들은 그들 자신이 주인이며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철저하게 공동체적 평등주의와 행동관계 속에서 자기의 노동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적극적 노동을 할 수 있었다(신용하, 1987: 440). 이외에도 두레는 술과 놀이의 정신과 조직적 장유유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어느 행사나 제의에서도 구성원들간에 놀이문화가 퍼져 있다는 것은 노동의 힘듬과 괴로움을 놀이를 통하여 잊게 하고 노동이 곧 노는 것이라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 노동의 효율성과 함께 제의를 진행할 때에도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유도하였다(표인주, 1996: 249-251). 생활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일 공동체

인 두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놀이 공동체로 전환되는 것이다.

노동요의 사설은 대부분 서정시이며, 서정시에 적합한 비유, 상징 등의 수사법으로 소박하면서도 묘미 있는 심상을 갖춘 것이 적지 않다. 일하는 사람의 신선하고 보람찬 의식을 나타내는 한편,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한 작품에 복합되어 긴장된 구조를 이루하기도 한다(이창신, 2007: 91-195). 노동요의 사설은 농촌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즉 농사와 관련된 일과 집안일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충과 효 등의 동양 유교사상과 관련있는 것들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는 농민들에 세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내리는 비는 생존에 필수적이다.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음양의 작용은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사설에 음양오행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농요의 사설에서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인생을 음식과 옷에 비유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을 담겨 있어 불교의 제행무상사상의 영향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한의 정서는 노동요에 깊이 배어나고 있다. 농요에 나타나는 한은 늙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힘든 시집살이의 한, 자신의 어려운 삶에 대한 한탄 등이 묻어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들이 많다.

넓은 뜰을 경적해온 증평에 전해 내려오는 장뜰두레농요는 도안뜰과 질벌뜰을 둘러싸고 마을을 이룬 증평리, 사곡리, 용강리, 송산리, 미암리, 남하리 일원에서 논농사와 함께 불린 농요이다. 이러한 농요의 사설은 대부분 농사일의 시기에 따른 자연현상과 농사와 관련된 일상사, 농부의 삶의 애환, 효친사상과 우리민족 특유의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래는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고 있다.

2. 장뜰두레농요의 내용

장뜰두레농요는 고리질소리·모찌기소리·모내기소리·초듬매기소리·이듬매기소리·보리방아찧기소리·세듬매기소리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창방식은 다른 노동요와 같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음 구성은 충주의 마수리 농요나 정선아리랑의 메나리조와 같지만 표현기업에 경상도 민요의 음악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장뜰두레농요의 음악적 특징은 증평지역이 역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접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장뜰두레농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리질소리

고리는 물을 담아서 끓기는 기구를 말한다. 고리질소리는 논에 물을 퍼 넣을 때 하는 노동요로서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각각 8분의 12박자 한 마디로 되어 있다. 빠르기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유창하고 여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선소리꾼의 메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보다 한 옥타브 높게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하는 형태는 충북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예로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충북 노동요의 유연한 선율을 진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고리질소리 사설>

◎ 받는 소리 : 고리야 두레야

◎ 메기는 소리 :

- | | |
|--------------------|--------------------|
| 1) 이 논자리로 말하면 | 2) 김서방네 논자리로 |
| 3) 서마지기 노자린데 | 4) 이 논베미가 세마지긴가 |
| 5) 양 팔에 힘을 주어 | 6) 허리를 굽혀서 줄을 놓아요 |
| 7) 앞줄을 놓아서 양줄을 당겨라 | 8) 양줄을 당겨서 뒷줄을 놓아라 |
| 9) 이 둠벙으로 말하자면 | 10) 물량이 천고래요 |
| 11) 쐐례질이 잘되도록 | 12) 물량을 충분히 넣게 |
| 13) 네 귀퉁이에 물이 돌게 | 14) 힘을 주어 품어주게 |
| 15) 김서방은 어디 갔나 | 16) 소를 몰고 빨리 와서 |
| 17) 쐐례질이나 하여 주오 | |

2) 모찌기소리

모찌기소리는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 각각 8중의 12박자 1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 음은 위로 밀어 올리는 추성(推聲)의 표현법이 모찌기소리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추성하는 표현법은 선율의 느낌을 유연하고 세련되게 해주고 있다. 제3·5·6·7 행의 메기는 소리에는 사설이 모음을 한 번 더 발음하면서 리듬을 맞추고 있다.

《사설 유형》

- | | | | |
|-------------|-----|-------|----|
| 제 3 행 : 요내 | 말씀좀 | 들어(어) | 보소 |
| 제 5 행 : 이못 | 자리로 | 말할(거) | 거면 |
| 제 6 행 : 한섬 | 지기 | 못자(아) | 린데 |
| 제 7 행 : 우리를 | 구름 | 갖추(우) | 어서 |

위의 사설 중에서 ()안의 사설은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으로서 고리질소리에서와 같이 동일음을 한 번 더 노래하는 것인데, 충청북도 다른 지방의 농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와 같이 발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노래함으로써 선율이 보다 힘차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는 경상도 민요의 강한 억양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충북 농요적 특징에 경상도 민요의 강한 억양이 가미된 형태로 보여진다.

<모찌기소리 사설>

◎ 받는 소리 : 뭉치세 뭉치세

◎ 메기는 소리 :

- | | |
|-----------------|-------------------|
| 1) 오늘 찌는 못자리는 | 2) 한섬지기 못자린데 |
| 3) 양팔로 감아돌려 | 4) 세 주먹 자리로 감아주오 |
| 5) 새이참이 되기 전에 | 6) 빨리 빨리나 뜁어주오 |
| 7) 오늘 해도 중천에 가고 | 8) 못자리판이 다 되어 가는데 |
| 9) 새이그릇은 보이지 않고 | 10) 솔단지가 깨겼나 |
| 11) 금년에도 득신이 좋아 | 12) 풍년 농사 될 것이오 |
| 13) 집집마다 일손을 모아 | 14) 심지 뽑기 순서대로 |
| 15) 가는 일손 오는 일손 | 16) 내일 일은 누구 차례 |
| 17) 소아비이 김서방아 | 18) 우리 논 좀 쓸어주게 |
| 19) 모찌기가 끝나며는 | 20) 모내기로 들어가세 |

3) 모내기소리

볏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모내기라 하는데, 모진아비는 모찌는 동안 써레질을 한 논에 모침을 옮겨 놓는다. 반복되는 선율의 첫 부분의 음을 높거나 낮게 변화를 주는 형태는 민요의 1절, 2절 노래가 반복되면서 높은 음으로, 혹은 낮은 음으로 시작되는 것과 유사하다.

<모내기소리 사설>

◎ 받는 소리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논에 들어갈때까지 반복)

◎ 메기는 소리 :

- 1) 아리랑 말년에는 난리가 나고 갑인년 이후로 통령이 났네

- 2) 바람이 불라면 동남풍이나 불고 풍년이 들라면 쌀 풍년이나 들지
- 3) 세월이 갈거며는 저 혼자나 가지 알뜰한 이내청춘 워 다리고 가나
- 4) 저건 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 또 묵었네
- 5) 여기도 꽂고 저기도나 꽂고 삼백출 자리로만 꽂어나주게
- 6) 시어머니 잔소리는 설비상 같고 우리님 잔소리는 꿀맛같어
- 7) 자식에 애정은 벼릴 수 있지만 부모님 효행은 벼릴 수 없네
- 8) 선조님들의 지켜온 문화전통 대대손손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어
- 9) 호박은 늙을수록 색깔이 나건만 인간은 늙을수록 피깔이 업서
- 10) 우리가 살며는 만년 사나 인간백년 단 칠십도 못하는 인생
- 11) 이제나 언제나 유정님 만나 요 세상 백년을 잘살아볼까
- 12) 타고난 팔자는 변할 수 업서 사람마다 직업은 천홍 만층
- 13) 오늘 날다 내일 이맘 때 죽더라도 내 배속만 든든 하면은 근심걱정 없어
- 14) 동지선달 쌓인 눈은 봄이 되면 풀기건만 이내가슴 쌓인 수심은 하절이 되도 안 풀려
- 15) 날가라네 날가라네 날가라네 시집살이 못한다고 날가라네
- 16) 시집살이 못하는 것 배우면 하지 아들딸을 못 낳는건 가라면 가지
- 17) 시어머님 드리려고 호박은 삶았더니 잠결에 잘못 삶아서 요강단지를 삶았네
- 18) 오늘 해도 다 넘어 가고 집집마다가 저녁연기 만나아네
- 19) 시집을 잘한다고 청찬을 했더니 요강단지를 부셔다가 창상 속에 넣네
- 20) 부령청진 가신 임은 돈이나 별면 오련만 공동묘지 콩팔러 가신님은 어느 시절에 오나
- 21) 무정한 우리임아 가지 마오 임 없는 요 세상 어떻게 실어
- 22) 오다가다 만난 사람 정으로 살고 기미머리 마저 풀건 법으로 사네
- 23) 뒷동산에 도라지꽃 모록모록 우리 집에 상고머리 거덜가달 놓어
- 24) 세월에 청춘은 젊어오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네
- 25) 아리랑 고개는 몇 고겐가 인생에 이구비는 한이 없네
- 26)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시집살이 시어머님 미운신우 말도 많네
- 27) 엄중한 아비 밑에 효자 나고 엄중한 어미 밑에 효녀나다
- 28) 서산에 자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두고 가시는 임 가고 싶어 가나
- 29) 일년 서산 해는 거의 자는데 골골어을 마다가 저녁 연기 나네
- 30) 시어머님 죽으라고 백일정성 했더니 친정어머님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 31) 아리랑 타령을 잘하가는 말동서 잡년도 잘잘하고
- 32) 양산도 타령을 잘하는 이모집에 딸년도 잘잘하고

- 33) 봄철인지 가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에 매화춘절이 나를 알려주네
 34)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춘삼월이면 산채나 물만 뜯어 먹어도 봄은 살아나네

4) 초듭매기

모내기를 한 후 보름정도 지나 맨손으로 어린 풀을 훔치는 행위이다. 작업능률을 올리고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을 가미한다.

〈시작〉

- 선소리꾼 : 자 논매러 가세
- 농부들 : 예 하며 논으로 들어간다
- 선소리꾼 : 어허슬슬 더듬어 주세 하며 앞장서면 (받는 소리)
- 농부들 : 어허 슬슬 더듬어 주세 하며 논으로 들어간다
(논에 들어갈때까지 반복)

◎ 메기는 소리 :

- | | |
|----------------|-------------------|
| 1) 천지 만물 중에 | 2) 사람밖에 또 있는가 |
| 3) 이 세상에 나올적에 | 4) 아버님전 뼈를 빌고 |
| 5) 어머님전 살을 빌어 | 6) 칠성님전 영을 빌고 |
| 7) 지성님전 복을 빌어 | 8) 이내 일신 탄생하야 |
| 9) 산두살에 유포양육 | 10) 회전취습 세탁부경 |
| 11) 연고토감 위조아업 | 12) 원행역념 구경연민 |
| 13) 회탁수호 임산수고 | 14) 열칠팔세 생자망우 |
| 15) 다생부모 십전대온 | 16) 부모님 은혜 다 갚을손가 |
| 17) 더더없이 가는 인생 | 18) 누가 능히 막을손가 |
| 19) 저승길은 가는 길에 | 20) 머리깍어 집신삼아 |

5) 이듬매기

초듭매기를 하고 보름정도 지나 호미로 논을 매는데 이때 작업은 모의 뿌리를 끊어 뿌리를 활착시키는 작업이다.

〈시작〉

- 선소리꾼 : 자 논매러 가세
- 농부들 : 예 하며 논으로 들어간다
- 선소리꾼 : 에 혜라 방아호 하며 앞장서면 (받는 소리)
- 농부들 : 에혜라 방아호 하며 호미를 들고 논으로 들어간다
(논에 들어갈때까지 반복)

◎ 폐기는 소리 :

- | | |
|-------------------|---------------------|
| 1) 이방아가 뉘방안가 | 2) 우리농부 디딜방아 |
| 3) 명사십리 해당화야 | 4) 꽃이 진다 서러워마라 |
| 5) 명년 춘삼월이 돌아오면 | 6) 너는 다시 피련만은 |
| 7) 인간 아차 죽어지면 | 8) 짹이 돋나 움이 나나 |
| 9) 초로같은 우리인생 | 10) 한번가면 못 온다네 |
| 11) 공수거 공수래라 | 12) 인간의 본능이라 |
| 13) 어서 맵세 빨리 맵세 | 14) 오칸 댕이로 매여나 주소 |
| 15) 칠년 대한 구년 지수 | 16) 온갖 재난 다 겪으며 |
| 17) 농사의 전통을 이어왔네 | 18) 보리타작 해야 되고 |
| 19) 보리밭 망도 세쏴야 되고 | 20) 콩밭도 심우야 되고 |
| 21) 참깨 들깨도 심우야 되고 | 22) 손이 열 개라도 모자른 일손 |
| 23) 어느사람 팔자 좋아 | 24) 고대광실 기와집에 |
| 25) 부귀영화 누리건만 | 26) 이놈 팔자 기박하여 |
| 27) 빈공간만 면치못해 | 28) 운명에 팔자로다 |

6) 보리방아찧기

보리방아는 디딜방아와 절구를 이용하여 도정하는 작업이다. 보리방아찧기는 논매기를 끝내고 농번기를 지나 보리타작을 하고 방아를 짚는다.

< 시작 >

- 선소리꾼 : 자 모내기도 끝나고 보리타작도 끝났으니 보리방아나 짚으로 가세 하면
- 농부들 : 예 하며 아낙들은 방아를 짚고 남자들은 거들어 주며 소리를 같이 한다
- 선소리꾼 : 덜크덩쿵 쿵덕퉁 짚는 방아 언제나 다 짚고 밤마실 가나
(받는 소리)
- 농부들 : 덜크덩쿵 쿵덕퉁 짚는 방아 언제나 다 짚고 밤마실 가나

◎ 폐기는 소리 :

- 1) 덜크덩쿵 쿵덕쿵 짚는 방아 가운데 동세가 더 잘찧네
- 2) 영감아 땅감아 개떡죽 먹게 방아풀 팔아서 개떡죽 쑤었네
- 3) 풋보리 깍어서 떡보리 하고 깔꺼러운 보리떡 꿀맛같어
- 4) 울다리 밑에서 골비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받어 먹게
- 5) 떡-은 받아서 물팽개 치고 손목만 잡고서 벌벌 떠네

- 6) 팔라당 펄러덩 홍갑사 댕기 고운때도 않묻어 사주가 왔네
- 7) 사주는 받아서 옆에도 놓고 한숨은 쉬어서 동남풍 되네
- 8) 눈물은 흘려서 한강수 되고 이내생활 가는게이 여자일생
- 9) 대추나무 뿐날 때가 어려운 계절 딸자식 집어도 가지를 마소
- 10) 칡뿌리 캐어서 가루내여 칡떡엿 수제비를 먹어봤나
- 11) 젖 달라고 우는 자식 드에 업고 아침밥상 마련하려 절구방아
- 12) 고대광실 놓은 집에 대청마루 김대감 상투가 흔들흔들
- 13) 김대감 상투가 풀력하니 담 넘어 큰아기 손짓 하네
- 14) 놀다가게 놀다가게 놀다가게 스무사흘 달뜨도록 놀다 가게
- 15) 놀다가 가는 님은 졸장부요 잠자다 가는 님은 내님이지
- 16) 시어머님 죽어서 좋았더니 뵈방아 물벼놓니 또 생각나네
- 17) 열라는 콩밭은 왜아니 열고 아주끼리 동백은 왜 요리 열려
- 18) 아주가리 동백아 열지마라 우리집 삼동서 출난봉 나네
- 19) 동쪽은 청목어요 봄에 계절 1,2,3월 모든 수목이 싹트는 계절
- 20) 남쪽은 적하이요 여름 계절 4,5,6월 모든 식물이 꽂피는 계절
- 21) 서쪽은 황금이요 가을 계절 7,8,9월 모든 곡식이 열매 맷 계절
- 22) 북쪽은 백동이요 겨울 계절 10,11,12월 황금추수 수확 계절

7) 세듭매기

세듭매기는 논에 자란 풀을 뜯어 주는 작업이다. 일의 능률이 오르도록 흥을 가미 한다.

〈 시작 〉

- 선소리꾼 : 자 보리방아도 끝났으니 논 뜯으러 가세
- 농 부 들 : 예 하며 맨손으로 논으로 들어간다
- 선소리꾼 : 흥계 방계가 논다 (받는 소리)
- 농 부 들 : 흥계 방계가 논다 (논에 들어갈때까지 반복)

◎ 메기는 소리 :

- | | |
|------------------|-------------------|
| 1) 천지지간 만물중에 | 2) 음양으로 태어나서 |
| 3) 오해애 조화 살아가며 | 4) 천간삼광 지지오복 |
| 5) 잡풀도 많고 곱풀도 많네 | 6) 참방계도 너무나 많은데 |
| 7) 요리 조리 손을 맞추어 | 8) 말끔이나 훔취주소 |
| 9) 한 나절이 다 되어가도 | 10) 주인 양반은 보이지 않네 |

11) 공수거 공수레라

12) 인간의 본능이라

8) 신명풀이

세듭매기를 하면 벼베기 까지는 할 일이 없어진다. 신명풀이는 벼농삿일이 일단은 잘끝냈다는 의미에서 한바탕 놀이로 이어진다. 놀이는 세듭매기를 끝내고 나오면서 이어지는데 한바탕 축제가 되도록 도통이, 갓 등을 하늘 높이 집어 던지며 홍을 다하여 한바탕 놀고 마무리를 한다.

3. 장뜰두레농요의 문화적 가치

증평군에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장뜰두레농요는 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로서 고리질소리·모찌기소리·모내기소리·초듭매기소리·이듭매기소리·보리방아찧기소리·세듭매기소리의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형식은 선소리꾼의 메기는 소리와 여러 사람들이 노래하는 받는 소리로 되어 있고, 모두가 3분박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3분박의 리듬은 우리나라 노동요의 일반적 형태이다.

음조직은 4음음계로서 완전4도+단3도+장2도의 음정간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음조직은 경상도의 보리타작소리나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장뜰두레농요는 강원도에서 충청북도를 거쳐 경상도로 이어지는 음악문화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내기소리는 음 구성이 4음음계에 가변적 경과음이 하나 추가되고 있어서 정선아리랑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장뜰두레농요는 우리나라 동부권, 즉 강원도와 경상도의 음악들과 같은 문화권에 속해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음악적 어법을 가지고 있다(이창신, 2007). 장뜰두레농요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설 한 글자에 동일한 음을 한 번 더 굴리듯 노래한다. 고리질소리와 모찌기 소리·초듭매기소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충북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노동요의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법은 악상을 힘차고 씩씩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도 민요의 강한 억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내기소리와 보리방아찧기소리는 정선아리랑과 유사한 부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선아리랑은 16분음표가 많이 노래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율에 굴곡이 많아 치연한 느낌이 강하지만 모내기소리는 보다 여유있고 밝은 악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충북지역민의 여유있고 부드러운 기질의 음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초듭매기소리와 이듭매기소리에서 볼 수 있는 넓은 간격의 음진행이다. ‘장6도

상행 → 완전8도 하행 → 완전4도 상행'과 같은 진행은 씩씩하고 힘찬 느낌을 주는 형태로서 장뜰두레농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증평군의 장뜰두레농요는 기본적으로 동부민요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북의 여유있고 유장한 선율에 경상도 민요조의 강한 억양과 힘찬 음진행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이 지역만의 특징적 모습과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의 트랜드에서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문화의 표현 양상도 다양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문화가 이벤트성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대중적인 레저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이를 문화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화현실이다. 문화가 흥과 신명과 감동을 주어 우리의 생활전반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덕에 동남아권에 한류열풍이 휩쓸고 있는 것 또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의 문화가 휩쓸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정신문화는 뒷전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치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가격중심의 문화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문화의 근본이 인간존중과 인격의 합양에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질서와 윤리가 실천되는 생활문화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성문화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 짹이 없다. 우리는 시대조류에 편승하여 감성의 문화에 젖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도의 문화를 선양하고, 역사관을 바로 하고, 고유문화를 개발하는 소위 정신문화를 선양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III. 지역문화축제 발전방안 -장뜰 들노래축제를 중심으로-

1. 장뜰들노래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07. 6. 16~17(2일간) 증평읍 남하리 둔덕마을 지역박물관조성부지 일원에서 개최된 장뜰들노래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인원은 5,000여명이었고, 예산은 75,000천원(균특 60,000천원, 도비 15,000천원)이었으며, 장뜰들노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농요에는 지방의 정서와 흔이 배어 있다. 마을사람끼리 모여 일하고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가까운 이웃으로 형제애를 나눈 삶을 살았다. 힘든 농삿일이, 고달픔이 두

례속에서 녹아 흥이 되고, 삶의 애환도 기쁨도 희망도 가락으로 묻어났다. 농요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변화기 마련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가창방식과 선소리꾼의 기량과 공연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른 양태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뜰두레농요는 이러한 변질을 최소화하고자 증평에서 거주하면서 선소리를 할줄 아는 분들을 초청하여 모두의 노래를 들어 보고 원형을 찾아 장뜰두레농요로 체계화하였다. 사설은 주로 농번기 각각의 시기에 맞는 자연현상의 뒷소리와 삶의 애환을 담고 효친사상과 풍자해학을 담고 있으며 장단과 음은 증평과 인접한 청안, 사리, 괴산등지와 비슷하다. 장뜰두레농요는 논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함께 일하며 부르는 노래를 채록하여 풍장과 함께 구성하여 두레놀이 보존회에서 시연하고 해마다 증평읍 둔덕마을에서 6월 둘째주 일요일을 택하여 “장뜰노래나들이”라는 행사명으로 논에서 시연하며 보존 계승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연순서는 마을에서 풍년기원굿을 시작으로 고리질⇒모찌기⇒모내기⇒초듬매기⇒이듬매기⇒보리방아찧기⇒세듬매기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창방식은 모두가 메기고 받는 소리로 되어 있다. 장뜰두레농요 공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공연시기 : 매년 6월 둘째주 일요일을 낸 2일(토-일)

- 행 사 명 : 장뜰들노래 나들이
- 공연시간 : 2시간 정도 (논에서 직접 일을 하며 공연)
- 주 죄 : 장뜰두레놀이보존회
- 장소준비 : 못자리판 4월 설치, 5월20일경 논매기용 모내기 실시

② 마을안녕 기원굿

- 지신밟기 :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마을회관에서 상을 차려놓고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굿판과 함께 고사를 올리고 장독대로 가서 무병발복을 빈다.
- 용왕굿 : 마을 공동우물에 가서 물이 충분히 솟도록 빌며 무병발복을 기원하는 굿판을 벌인다.

장뜰들노래축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개최하여 전국축제로 발돋움하는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이다. 흥겨운 지역문화축제이며, 주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농촌의 정서를 담아내는 축제라 할 수 있다. 옛 모내기방식을 완벽하게 재연하고 있으며, 매년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주관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충북민요보존회

- 장소 : 증평읍 연탄리 증평문화회관
- 참석인원 : 600명
- 소요경비 : 8,669천원 (자부담: 4,669천원, 보조금 4,000천원)
- 행사내용 : 전국국악 토속민요경창대회, 성악, 기악, 무용, 판소리

○ 증평미술협회

- 소요경비 : 7,500천원(자체: 500천원, 지원: 7,500천원)
- 행사내용 : 체험학습장-5종(도자기체험, 어린이목공예체험, 페이스페인팅, 점핑 클레이 및 종이체험, 리본 및 비즈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 한마당(대회), 장승깎기(외부초청팀)

○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 소요경비 : 20,000천원(자체: 5,000천원, 지원: 15,000천원)
- 행사내용 : 장뜰 들노래 전국사진 촬영대회

○ 사단법인 증평예총

- 소요경비 : 2,318천원(자체: 18천원, 지원: 2,300천원)
- 행사내용 : 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작품 및 행사사진 전시, 학생농악경연대회

○ 증평청년회의소

- 소요경비 : 1,542천원(자체: 1,042 천원, 지원: 500천원)
- 행사내용 : 산골매기 잡아가기

2. 지역문화축제 발전 방안 : 장뜰 들노래축제를 중심으로

1) 브랜드 제고

장뜰들노래축제는 홍보 미흡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 급증, 관광객 증가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문객 유지 및 유치를 위한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축제 명칭을 알기 쉬운 축제명으로 개명 필요가 있으며, 브랜드 마케팅화에 주력해야 한다.

체험관광 상품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관광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엄서호, 2007). 우리문화, 즉 생활문화,

창조문화, 역사문화, 농촌문화의 모든 부문이 관광이라는 모자를 쓰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체험상품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 「관광모자론」의 입장이다. 즉, 원래 하고 있는 일을 이미지 제고와 대외접촉 강화의 차원에서 일반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체험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광이라는 모자를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체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다양성과 정통성 차원에서 외국의 상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상품은, 삶의 현정이 주는 이미지 그 자체를 상품화한 체험상품과 비교할 때 정통성이 부족하므로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

관광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나,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 투자만으로는 절대로 관광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교통, 안내 체계 등이 미비되어 있으면 관광객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관광인프라 투자는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전반적인 국가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사리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체험관광 상품개발은 소규모 투자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보다 한국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아 냄으로써 관광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목적지로서 의외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문화, 그리고 예술과 같은 창조문화 등 모든 문화가 아마추어 관광차원에서 모두 체험상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체험관광은 관광객 수를 중시하는 양적 차원의 대량관광 수단이 아니고 관광객의 만족을 우선하는 질적 차원의 품질관광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품질관광에서의 초점은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객 만족인데, 생태관광은 문화관광과 더불어 품질관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의 만족을 위한 품질관광을 위해서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체험상품화함으로써 그 지역을 방문해야만 그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소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高價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으므로 품질관광이야말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광객의 체험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영속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개발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엄서호, 2007).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는 두 차원 사이의 균형이 항상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보전이란 자연환경의 보호와는 다른 의미로 외부에서 인식되고 있는 해당지역 특유의 사회문화적 유산, 삶의 형태, 생활의 질, 이미지, 정체성 등의 보전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단순한 환경론자의 주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나 개발론자의 경제개발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즉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이다.

2) 프로그램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프로그램 미약하고 연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논에서 시연하는 것은 새로움을 줄 수 있고,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면에서 짚은총의 참여는 바람직하지만 몸동작이 어정쩡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논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두레놀이에서 두레기와 영기, 농기가 일렬로 행진하는 듯 보여 멋밋하다. 전반적인 배치는 무난하나 여치집 만들기, 짚풀공예체험 등 체험장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마을화합경기에 있어 팀별 출연자가 제출된 명단과 일치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 행사 자연으로 우렁이 잡기 등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었다. 메기·우렁이 잡기는 찌개나 안주끼리로 맛을 볼 수 있는 연계성이 부족한 편이다. 학교·회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단오세시놀이 체험 및 농촌체험문화 다양화가 요구된다. 사진촬영대회는 전국대회로 자리잡은 것 같으나 축제가 사진촬영대회로 비춰지지 않도록 연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자원을 테마로 한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구도는, 첫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생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만들고(환경전략), 둘째, 잘 가꿔진 농촌·생태자원과 다양한 농촌·문화자원을 결합·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활성화하며(경제·사회전략), 셋째, 주민의 개성적이고 매력있는 문화를 계승·창조함으로써(문화전략), 넷째, 궁극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정체성 향상 즉,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 향상과 대내적인 定住性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장소마케팅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관행적 개발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농촌자원을 비롯한 촌락의 경관·역사·민속·정취 등의 요소들을 특성있게 결합하여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케팅의 주체로서 주민의 리더십 확보와 지원자로서의 행정 및 전문가들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주민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관련단체가 지역·마을로 들어가서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창조적인 개발과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마을공동체 또는 여러 마을의 연합체가 지역의 시설과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생산 및 생활 체험시설을 제공

하며, 지역문화를 보전·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도록 해야 한다.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하려는 추진 주체의 전략적 판단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 관광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여 감동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 추진할 경우에는 리더쉽 개발과 주민참여 및 조직화,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긍정적 태도가 요구된다. 사업자의 열정과 안목을 길러주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창구가 필요하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주 이용층(target market)을 설정하고 이들의 요구(needs)를 충족시켜야 한다. 개발 시 경쟁시설과 상품의 유무, 판로를 충분히 파악하고 시장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별화, 집중 전략 등을 채택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한다. 농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 부족한 일손의 확보, 생산 원가 및 유통비용의 절감 등 경영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3) 안내자와 프로그램 운영자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자가 없음었고, 복장을 갖춘 안내요원이나 봉사요원도 부족하였다. 연출팀과 주관단체와의 사전 조율이 없어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관광명소에 배치된 관광가이드는 방문객들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광안내 및 지역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된 관광기반시설도 결국 현장에서 관광가이드들의 친밀하고 생생한 관광서비스에 의해 방문객들에게 호의적인 지역이미지와 감동을 유발함으로써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 거시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탁월한 기획·연출력을 겸비하고 관광상품 및 마케팅프로그램의 설계를 담당할 만한 전문적인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계 및 산업체와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실무자에 대한 위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핵심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축제 진행요원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 거점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 지도자 연수를 재택학습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수방법은 인터넷 강의, 실시간 동영상, VOD, 현장 학습 위주로 진행한다. 지역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요령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몸가짐과 복장, 인사요령, 자세, 접대 요령, 프라이버시 유지 의무, 안전과 위생, 응급상황 대비요령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각종 주의사항, 지역의 관광정보, 이벤트 소식, 행사 안내, 교통 및 농·특산물 구입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팜플렛, 지도, 안내서 등을 제작하는 방법도 습득도록 한다. 고객평가 요령,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억을唤起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체험학습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4) 부대시설과 접근성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6월 기온이 30℃를 웃돌기 때문에 행사장에 해가림시설 설치 필요하다. 축제공간이 좁고 동선이 좌우로 좁다. 행사장 규모를 키우고 야간행사까지 계획하여 체류형 테마가 되어야 한다. 해사장 배치표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안내요원 부족하였다. 급수시설 및 세면시설이 부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교통의 성장과 발전은 일부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의 성장력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 시킴으로써 수직적인 관광계층화에서 벗어나 지역 간 수평적·교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광객은 거주지에서 관광목적지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적 거리가 짧은 교통수단을 선호한다. 이는 관광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로부터의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을 교통수단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객은 쾌적하고 안락하며, 환승의 횟수가 적고 용이한 관광지를 선호한다. 초기 市場의 경우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과 같이 개인택시 운전자가 정해진 요금 하에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문화해설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한다.

5) 주민소득과의 연계성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마을소득을 위하여 옛 정서를 자극하고 운치 있게 마당에 차 일을 치고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고 축제의 테마에서 문화산업의 요소를 찾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경우 내방객이 증가될텐데 이런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미묘한 감정차이로 주민들의 친절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거점관광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이 주민의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주형태로 참여하고 중평군도 일정부분 참여하는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과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공신력 있는 상점을 운영하여 그 편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도농교류 활동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 ‘상업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의 결과가 폭넓은 범주에 걸쳐있는 ‘도농교류’ 활동에 대해 이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활동의 정당성과 대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공공부문 개입은 공익성 창출을 통한 사회적 후생의 증대가 시장기구에 의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그 정당성이 담보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활동들이 주목된다. 하나는 ‘농식품 직접 마케팅형 도농교류’이며, 다른 하나는 농촌 어메니티 보존 및 시장촉진을 위한 ‘농촌방문형 도농교류’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구화되고 있는 농식품 시장에서 익명성의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예컨대, 식품안전성 등)들을 예방 또는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유형의 도농교류를 지원하는 데 대한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낮은 시장도, 낮은 수준의 도구주의,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관계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농식품 직접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보완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의 직접적 접촉과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자체의 성격에 대한 정보의 교류를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교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교류를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집합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통해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 경우 도농교류의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거래의 경우 높은 신뢰성이 필요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증평군의 자연환경 이미지와 연계하면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증평군에서 보증하는 농산물의 품질보증에 결합되고, 청정이미지까지 결합하면 친환경 농산물 판매의 수익성은 그 가능성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농촌 어메니티 보존 및 시장촉진을 위한 농촌방문형 도농교류의 경우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은 보다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라는 사회적 가치와 ‘농촌관광’이라는 상업적 가치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개입은 이 두 개의 가치영역을 조화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장실패의 영역에 존재하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존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활동은 사회적 수요에 대해 공급능력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분명해 보인다.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의 외관을 다듬고, 마을공간의 미학적 완성도와 농촌성(rurality)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메니티 자원을 시장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펼치고 있는 개입활동들은 보다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전제

로 할 때만이 그 정당성을 분명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도농교류활동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훼손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어메니티 시장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편익의 수혜구조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의 물질적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농촌지역의 특정 장소에 대한 지역사회 또는 지방정부의 접근은 그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종종 목격하게 하고 있다.

어메니티 시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은 농촌관광 등 지역 어메니티 산업의 육성에서 나타난다. 이는 여타 시장영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시장 육성활동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공급자와 소비자 상호간의 개별적 거래관계를 규칙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가격기구에 의해 양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시장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농촌 어메니티 시장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은 시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구조, 비용과 편익구조의 형평성, 지역정체성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개별적 활동들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시장가치로의 전환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자원 그 자체가 지역성에 토대를 두고 있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6) 음식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식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마을식당의 음식이 너무 비싸고 먹을 게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왔다 식사를 못하거나 식사를 하고 식비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

음식문화는 특정분야에 대한 체험을 욕구하는 오늘날의 관광객들에게는 테마상품으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 테마별로 그 특징을 부여한 테마여행으로 개발해야 한다(조용란 외, 2009). 음식 관련 관광상품은 이벤트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상품의 대중성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킨다. 단순 관람상품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보게 하는 등 체험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음식의 이용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시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음식문화 투어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관광객의 체험과 참여를 얼마나 유도하고 만족시키는가에 달려있다. 향토음식에 대한 종합안내서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개별관광객 및 가족 관광객이 전문안내인의 동행 없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해야 한다. 축제 관련 행사는 ‘향토음식 재현체험’, ‘향토음식시식’, ‘요리강좌’ ‘지역별 향토음식 강좌’ 등과 같은 철저히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축제 참가객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

7) 홍보와 마케팅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홍보물이 너무 늦게 배포되었고, 다양한 홍보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수막이 적어 지역에서조차 축제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고, 도로변에서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사진, 국악 이외에는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했고, TV, 인터넷 홍보가 없었다. 장뜰들노래축제 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관광상품에 대한 소비의사결정을 할 때, 세밀하고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상표를 평가한다(김덕기, 2002). 즉, 어떤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 상황보다도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더 많은 상표를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소비자 환경변수는 소비자의 과거 경험, 과거의 마케팅 자극, 소비자 동기, 소비자 특성(인구통계적, 라이프스타일 및 개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의 환경적 영향요인도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가족구성원,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중요한 정보 원천이 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기업보다는 친구와 친척들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상호인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신제품 및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전달해야 한다.

표적시장이란 자사의 제품편익이 가장 소구할 수 있는 세분시장을 의미한다. 이때 세분시장은 특이성을 가지는 계층을 기준시장과 구분한 것으로서, 인구통계적 변수(성, 연령, 직업, 소득수준 등)나 준거집단별로 특이성을 탐색하여 설정한다. 세분시장 중 특정 지역의 방문편익을 집중적으로 소구(appeal)하는 집단이 표적시장으로서, 표적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활동의 전개는 기타 세분시장에도 마케팅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외래관광 시장도 해미지역 천주교관광에 대한 표적시장을 선정하되, 시장별로 홍보주제, 슬로건, 특화상품, 홍보매체 등을 별도로 개발하여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광상품 구매, 관광시설 예약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증대되고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안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의 간신과 쌍방교류의 문제점으로 인해, 네티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검색 및 교류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운영, 정보생산자 인센티브 개발, 지속적인

투자학대 등의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기적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나 관광객 욕구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목표시장에 대한 동향과 성향조사, 내방객 불만과 만족도 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관광정책 수립이나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민참여

장뜰들노래축제에서는 마을주민 참여는 적극적인데 비하여 군민참여가 저조하고, 마을주민들이 역할의 혼동으로 축제 진행에 혼선을 빚고 있었다. 민관 협조가 이루어져야 발전적으로 추진되는데 공조가 미흡하였다.

주인의식은 예속상태를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적 내면의 세계이다. 주인의식은 타율성을 배제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극복하고자 하는 자립정신인 것이고, 사회에 대한 권리적 주장과 아울러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역거버넌스체계는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 및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체제다(차미숙 외, 2003).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와 지역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전문가, NGO, 관광산업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학습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제3자 파트너십 체제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공동목표의 달성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이상 장뜰두레놀이의 가치와 이를 활용한 장뜰 들노래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촌의 삶과 문화, 희망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예술성, 교육성, 흥미성, 지역성을 살리고, 자연학습 공간, 옛 문화 시연장 준비, 농촌/문화자원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면 전국민의 사랑받는 지역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디서건 ‘장뜰’ 하면 ‘증평’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장뜰 들노래축제는 전통민속행사이면서 농경문화의 실연장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기계화로 사라지기 쉬운 우리 전통농업 문화를 소재로 고향에 대한 향수와 옛 농촌의 정서를 꾸밈없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어메니티자원이다.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의의는 결과적으로 축제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인프라가 얼마나 개선되고 향토자산을 얼마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있다.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름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산에 테마와 소재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장뜰 들노래축제는 소재면에서 고장의 전통, 역사, 문화, 향취 등 독특한 개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단순히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토자산이 그 지역과 어떤 역사문화적 연고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장뜰두레농요의 문화적 가치를 먼저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증뜰 들노래축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좋은 전개방식이다. 앞으로도 전문가로 하여금 향토자산의 전통성과 지역적 특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역사적 고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광부문에서도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의 독자적인 차별적 이미지 부각 및 관광수요의 자체적 창출을 기하기 위한 관광자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즉, 환경파괴의 위험이 없는 소위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이 요구된다.

향토자산을 활용한 지역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축제가 갖는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와 함께 공공재적 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장뜰들노래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자연자원을 개발, 집적화한 전통문화 자연 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도농교류의 장소로 제공하고, 농업인은 농업외소득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수려한 자연경관 등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체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생력을 지닌 농촌으로 전환하여 신규 여가수요의 창출과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중평지역은 국토 중앙의 지리적 여건과 근접성을 바탕으로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과 5도2촌시대 도래에 따른 체험·체류형 녹색관광지로 변모되길 기대한다. 사랑이 올 때는 살금살금 다가오지만 떠날 때는 문을 꽂 닫고 떠나버리는 것처럼 문화도 일정하게 만들어질 때는 꽃이 피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망가질 때는 낙화처럼 사라진다. 우리의 소중한 농경문화가 산업화, 쾌락화된 대중문화에 밀려 망가지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드넓은 뜰안에(장평) 살아 숨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가 간직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 환. (1998).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금산인삼제 행사평가: 최근 3년간의 비교분석. 「관광학연구」, 22(2): 57-63.
- 고승익 · 윤동구 · 정승운 · 박은아. (2000). 축제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분석: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23(2): 246-266.
- 권문호 · 이제억. (2005). 문화관광축제의 관광매력속성이 관광객 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4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9(2).
- 김길수. (2001). 지역이벤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5(2): 177-195.
- 김덕기. (2002).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제주관광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관합동토론회 발표 자료집.
- 김성현. (2005).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창수. (2004). 지방정부의 축제이벤트 재무비교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8(1): 85-101.
- 김창수. (2005).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발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정책학연구」, 11(2).
- 김총희. (2007). 중평 장소마케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추진전략. 충북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호 · 조순철. (2004). 축제마케팅과 지역발전-함평나비축제의 특성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4).
- 박건실. (2004).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17(4).
- 서휘석 · 이동기 · 김영희. (2002). 지역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인지: 익산세계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237-255.
- 송건섭. (2004). 축제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구 · 경북의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2).
- 송재일 · 유영준 · 김석출. (2005). 지역축제 방문객의 방문경험에 따른 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최초방문객과 재방문객의 비교. 「관광연구」, 19(2).
- 신용하. (1987). 두레공도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근대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신윤창 외. (2009). 평창군 농산촌 어메니티 수준 및 활용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197-222.
- 신윤창 · 안치순. (2008). 문화관광사업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통한 지방도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277-302.
- 안국찬. (2001).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

- 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엄서호. (2007).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어메니티 상품화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제공자료.
- 오순환. (1999). 지역축제의 실제와 경제적 효과: 이천 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202-221.
- 윤도현. (2007). 한국 생태공동체 체험학습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1(1).
- 윤준상·이종상. (2008). 도농 복합지역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갈등요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139-160.
- 이상영 외. (2008). 농촌의 친환경 어메니티 자원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 영향요인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197-214.
- 이준엽. (2003). 지역이벤트 관광객의 추구편익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4(3).
- 이준혁·이준혁. (2001). 축제방문객의 이미지 분석: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6(1): 201-215.
- 이창신. (2007). 충청북도 농요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종. (2004). 국제적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7(4): 339-360.
- 이희원. (2007). 조선후기 두례 정신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오. (2004). 지역축제의 가치와 문화정책. 「문화경제연구」, 7(1).
- 장경수. (2005). 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자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대구약령시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 19(3).
- 장순희. (200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정경수. (2005). 축제의 서비스품질이 방문자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약령시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9(3): 131-145.
- 조용란 외. (2009). 지역문화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분석과 지역발전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533-562.
- 지진호. (1999).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전략. 「여행학연구」, 9: 341-360.
- 차동우. (2004). 지역축제만족도에 의한 방문자의 재방문 및 구전홍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주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6(1): 55-69.
- 차미숙 외.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표인주. (1996). 수천 낙안읍성 공동체 민속과 공동체의 변이양상. 「민속학연구」, 제6호.
- 하영수. (2004). 지역문화행사에서 방문객의 관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보」, 16(1).
- 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허정옥·김정희. (2000). SERVQUAL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품질 측정. 「마케팅관리연구」, 5(2): 51-78.
- 황종규. (2005). 지역축제 방문자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풍기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2): 313-335.
- 黃凱·朱麗婷·陳之歡·李尚暉. (2008). 天壇公園門票價格模型分析與應用.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235-244.
- Backman, K., Backman, S., Uysal, M., & K. Mohr. (1995). An Examination of Motivation and Activities.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3: 15-24.
- Bryoland, A. & Curry, A. (2001). Service Improvements in Public Services Using Servqual. *Managing Service Quality*, 11(6).
- Butler, R. W. (1993). Tourism Development Process in Small Island States. London: Routledge.
- Carman, J. M. (1990).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An Assessment of the Servqual Dimensions. *Journal of Retailing*, 66(1).
- Cronin, J. Joseph & Steven A. Taylor. (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8(1): 55-68.
- Getz, D. (1991). *Special Event and Tourism*. New York: BNR.
- Geva, Aviva & Goldman, Arieh (1991). Satisfaction Measurement in Guided Tou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2).
- Hanemann, W. 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4.
- Hatry, P. H. (1980). Performance Measurement Principles and Techniques: An Overview for Local Government. *Public Productivity Review*, December.
- Hendon, W. S. (1981). *Evaluating Urban Parks and Recre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
- Mohr, K., Backman, K., Gahan, L., & Backman, S. (1993).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Type.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1: 89-97.
- Parasuraman, A., Zeithaml, V. A., and Berry, L. L. (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 12-40.
- Sureshchandar, G. S., Rajendran, C. & T. J. Kamalannabhan. (2001). Custo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A Critique. *Total Quality Management*, 12(1): 111-124.
- Wagenheim G. D. & J. H. Reurink. (1991). Customer Service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3): 266-269.
- Wholey, Joseph S. & Hatry, H. P. (1992). The Case for Performance Monitoring.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3).
- Wood, Emma H. (2005). 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Local Authority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8(1).
- Zeithaml, V. A., Berry, L. L. & A. Parasuraman.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1): 31-46.

접수일(2009년 09월 19일)

수정일자(2009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18일)